

旅菴 申景濬의 古體詩에 나타난 眞情性*

박명희**

〈차례〉

- I. 머리말
- II. 實得的 사조의 학문적 전개
- III. 시 형식의 典範 탈피
- IV. 眞情性의 추구하고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후기 실학파의 학문 경향은 관념성과 피상성에서 탈피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비천하고 천박한 것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학문의 한 내용을 채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전의 관념성이 팽배해 있던 시대적 분위기라면 특이한 현상일 것이고, 심지어 비판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었겠지만, 시대적 추이는 이미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물론 실학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들에게는 異意를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성 있는 학문 추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 여파는 거세어저만 갔다. 현재 이러한 실학이 조선후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 2004-050-A00021)

** 전북대학교

기 상황에서 역사성을 얻게 된 것도 일시적이지 않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문학은 학문 경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사고 표출의 완결이 학문이요, 이러한 학문은 문학적 형식을 빌어 결국은 외부로 나타내 보여 지기 때문이다. 보통 실학의 학문적 특징을 한 마디로 ‘博學’이라고 규정짓는다. 이는 文·史·哲은 물론이요, 문인들이 도외시할 수 있는 기타 학문까지 아우른 것으로 이럴 경우 더더욱 학문과 문학을 연관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뜻에서 그동안 행한 실학적 학문이 문학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연구한 성과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고는 일찍이 실학과로 분류된 旅菴 申景濬(1712~1781)의 학문적 특성과 함께 古體詩의 실상, 그리고 고체시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한 추적을 목적으로 하였다. 신경준에 대한 연구는 그의 학문적 업적이 多岐했듯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중 문학적 연구는 주로 「시칙」을 중심으로 행하였는데,¹⁾ 이는 기본적으로 「시칙」이 시의 이론을 전문적으로 다룬 내용으로 특이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문학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문에 대한 연구는 一淺한데, 중요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신경준 개인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준은 그동안 국토 지리와 국어학 등에 밝은 실학자로 알려져 있었지 시를 창작한 문인적 이미지는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중

1)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경준의 문학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金賢珠, 「譯註 旅菴詩」,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3.

줄 고, 「旅菴 申景濬의 詩論考」, 『한국언어문학』 35집, 301~318쪽.

_____, 「旅菴 申景濬의 詩則 再論」, 『한국언어문학』 54집, 157~180쪽.

李圭樁, 「여암 신경준의 畫舫齋辭 연구」, 『한국시가연구』 4집, 한국시가학회, 1998, 287~309쪽.

이용숙, 「申景濬의 <畫舫齋辭> 분석」,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9집, 1998, 491~507쪽.

정대립, 『한국고전비평사: 조선후기 편-신경준』, 태학사, 2001, 385~421쪽.

趙柔珍, 「旅菴 申景濬의 思惟樣式과 詩文學世界」,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崔信浩, 「申景濬의 詩則에 대하여」, 『한국한문학』 2집, 한국한문학회, 1977, 5~13쪽.

요한 단서 하나는 신경준 또한 62題 145首의 시문만을 남기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문의 창작은 조선시대 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것이 빌미가 되어 자연히 연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편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에 앞서서 신경준 자신이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적 형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는 실학을 몸소 문학을 통해 실천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신경준의 시문 연구는 결국 조선후기 실학과 문학의 한 실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좁게는 18세기 호남실학과 문학의 단면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II. 實得的 사고의 학문적 전개

신경준은 高靈申氏로 전라북도 淳昌 南山始가 태생지이다. 고령신씨가 순창과 인연을 맺게 된 시초는 10대조 歸來亭 申末舟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보고 절의를 지켜 모든 관직을 버리고 落南하면서부터이다.²⁾ 그후부터 순창은 고령신씨의 세거지가 되었는데, 신경준은 부친 洙와 모친 한산이씨 사이에서 태어난다. 많은 문인들이 그러하듯이 신경준도 어려서부터 明敏함을 보여주었는데, ‘태어난 후 8·9개월 후에 벽 위에 써진 문자를 알았고, 4세에는 周興嗣의 『천자문』을 읽고 문득 문자의 뜻을 깨달아 글을 지었으며, 5세에는 『시경』을 받아들였다³⁾’라고 하는 기록은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학은 8세 때 서울로 올라가면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 33세까지의 행적은 다음 내용에서 간명하게 알 수 있다.

내 나이 8세 된 己亥年에 서울로 학문의 길을 나섰고, 다음해인 庚子年에 강

2) 신경준의 가계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는 고동환, 「여암 신경준의 학문과 사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6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3, 181~182쪽 참조.

3) 『旅菴遺稿』 13卷 附錄, 行狀, 生纔八九月 能知壁上之有文字者 而指示於人 四歲讀周興嗣千字文 輒隨其字 能會意而作字 五歲受詩經.

화도 海中에 들어가니 어버이와 7백여 리나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마음이 울적하여 「悲思曲」 3장을 지어 산에 올라 노래하니 듣는 사람들이 가련히 여기었다. 癸卯年 12살 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壬子年 이후에 과업을 익히기 위하여 호서지방을 주류하고, 丁巳年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니 어머님을 모시고 경기도 素沙로 이사하였으나 이웃집 화재로 집이 소실되고, 辛酉年에 稷山으로 옮겼으나 상처하고, 끝누이와 함께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외가로 옮겨 함께 의탁하였으나 외할머니와 외숙 내외분이 모두 돌아가시니 甲子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방을 헤매고 나니 편치 않고 질병과 상사와 혼사 등 길흉이 엉켜 끝내 집안은 빈궁하게 되었다.⁴⁾

이 글은 신경준이 말년인 68세에 젊어서 살았던 옛 집터로 돌아와 옛일을 회상하며 정리한 것으로 때로는 학업을 위해, 그리고 정사년 26세 때 부친이 세상을 뜬 이후로는 가난 때문에 여러 곳을 전전했음을 적고 있다. 이렇듯 사방을 周遊했음은 「除夕懷親」이라는 시문에서도 ‘내 나이 자라 7세 때부터, 사방을 돌며 멀리서 배웠지, 끊임없이 타향을 돌아다니느라, 몇 번이나 폭죽소리에 놀랐었던가?’⁵⁾라고 하여 읊기도 하였다. 폭죽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나 터트리는 것으로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와 같이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을 것도 같은데, 부친이 돌아가신 그 다음 해인 27세부터 30세까지 소사에 있을 동안에는 「素沙問答」을 쓰고, 30세부터 33세까지 지냈던 직산에서는 「稷書」 등의 글까지 남긴다. 이 두 글에 대하여 知音인 耳溪 洪良浩는 ‘모두 관물하고 이치를 깨달은 말로써 깊고 독자적인 견해가 많다’⁶⁾라고 평가하기도

4) 『旅菴遺稿』卷4, 「南山舊廬記」, 始余八歲己亥 北學于洛 庚子 西入于江都海中 離親闈七百餘里 作悲思曲三闋 登山而謠 聞者憐之 癸卯復于鄉 壬子以後 爲肄業 周流洛下湖西 丁巳 先君子棄子孫 奉太夫人 移家于畿甸之素沙野 鄰火燬屋 辛酉 遷于蛇山 哭伉儷 與季妹爲太夫人奉 渭陽家來共宅 外王母叔叔母皆喪逝 甲子 又復于鄉 織路南北不康其居 疾病喪窆嫁娶 吉凶之故相仍 家遂以窶.

5) 『旅菴遺稿』卷1, 「除夕懷親」, …(前略)… 自從七歲強 遠學事周邏 連延旅殊方 幾驚爆竹火 …(省略)….

6) 『旅菴遺稿』卷13 附錄, 「墓碣銘」, 皆觀物悟理之言 而多深造獨見者.

하였다. 이중 「소사문답」은 특히, 신경준이 젊어서 가졌던 철학적 사고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二教九流의 회통 사상이 드러난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후대 문인들인 南義采와 閔泰勳은 각각 「소사문답」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秋水」보다도 奇奇하며, 「太玄經」보다도 簡簡하며, 「漁樵問答」보다도 古古하니 韻과 格이 뛰어나고 더욱 높다⁷⁾라고 했는가 하면, 「소사문답」 한 편은 莊子와 楊朱를 다시 살려낸다고 하여도 반드시 자기들보다 여암이 낫다고 할 것이다⁸⁾라고 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추수」는 『장자』 외 편에 수록된 글이며, 「태현경」은 양옹의 문장이고, 「어초문답」은 邵雍이 남긴 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남희채와 민태훈 등은 신경준의 「소사문답」을 중국의 역대 명문에 비견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⁹⁾ 신경준은 자신의 회고기인 「南山舊廬記」에서 이렇듯 가난한 삶에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학문을 계속할 수 있었던 노고를 어머니께 돌리고 있는데,¹⁰⁾ 事親의 정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학문에만 전념하던 신경준은 그의 나이 43세에 증광시 을과에 급제하게 되는데, 홍량호와 인연을 맺게된 계기이기도 하였다. 홍량호는 신경준의 명성을 미리 들었던지라 당시 시험 감독관의 위치에서 이름은 보지 않고 답안 내용만 보고서도 신경준이 제출한 것임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회자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 후 홍량호는 자신보다 12세 정도 나이가 많은 신경준이지만, ‘남보다 뛰어나고 기이한 선비임을 알고 더불어 사귄 것을 결정했다’¹¹⁾는 말을 적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홍량호는 소론이요, 신경준은 소북 계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꼈을 것인데, 학문적으로 통하는 점이 있었기에 교류할 뜻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7) 『旅菴全書』卷2, 「素沙跋」, 奇奇於秋水 簡簡於太玄 古古於漁樵問答 韻與格益勝益高.
 8) 『旅菴全書』卷2, 「素沙跋」, 而但素沙一篇 雖復起莊楊諸子來 必許與爲伯.
 9) 신경준의 「소사문답」에 대한 연구는 이강오(「여암의 소사문답」, 『여암 신경준 선생의 학문과 사상』, 옥천향토문화연구소, 1994, 69~104쪽)와 오병무(「여암 신경준의 ‘소사문답’에 대한 존재론적 조명」, 『건지철학』 4집, 한국건지철학회, 1996, 204~233쪽)의 논문을 참조할 것.
 10) 『旅菴遺稿』卷4, 「南山舊廬記」, 太夫人嘗謂余曰 家貧非病也 學貧是恥也 家雖貧 汝不負米於百里而日再食 勿以我爲憂 憂汝之憂 凡孝貴養其志也.
 11) 『旅菴遺稿』卷13, 「墓碣銘」, 余就見于邸 信魁奇士也 遂與定交.

급제한 신경준은 承文院 記注官을 시작으로 내·외직을 두루하는데, 『남산 구려기』에서 ‘갑술년에 벼슬을 시작하여 26년 간 계속하고, 봉록은 24년 간 받았으며, 품계는 3품에 오르고, 다섯 번의 큰 고을을 맡았다’¹²⁾라고 평생 지냈던 벼슬에 대하여 회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경준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여암유고』와 『여암전서』 등에 전해지고 있는 논저로는 「日本證韻」, 「諺書音解」, 「平仄韻互舉」, 「車制策」, 「水車圖說」, 「論船車備禦」, 「儀表圖」, 「類仰圖」, 「疆界志」, 『東國文獻備考』, 「輿地考」, 「山水考」, 「道路考」, 「四沿考」, 「伽藍考」 등이 있다. 여기에 관직에 오르기 전에 저술하였던 「시칙」과 「소사문답」, 「직서」, 「訓民正音韻解」 등까지 합하면, 흔히 볼 수 없는 많은 논설적인 글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훈민정음운해」는 신경준이 관직에 나아가기 전인 39세 때에 지은 저작으로 소용의 「皇極經世音圖」를 본보기로 삼고 작성한 韻圖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깊이 있는 문자론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책」은 중국에서 발달한 여러 가지 수레인 路車, 戎車, 乘車 등의 유래와 그 효용성을 논하고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하기를 주장하는 글이다. 「수차도설」은 관개용 수차의 개발을 도설한 글이고, 「논선거비어」는 우리나라 병선의 모양과 구조, 속력, 편제 등의 결합에 대해 도해하여 설명하고서 국방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계지」는 우리나라의 고대부터 역사상에 나타난 각 국가의 지역 및 도시들에 관한 연혁, 강역 및 위치 등을 고증하고 우리나라 별호를 처음으로 언급한 역사지리서이다. 「도로고」는 중국 주나라의 「職分圖」를 인용하여 도로의 관리, 개념, 里程 등에 관하여 서술한 글로 알려져 있다. 「산수고」는 우리나라의 산과 강줄기를 상세히 추적하는 한편, 군현별로 소개하는 산천을 설명하였고, 「사연고」는 우리나라 연해의 지리를 상세히 서술하는가 하면, 중국과의 해로·일본과의 수육로 등을 상술하였다. 그리고 「가람고」는 전국의 사찰에 관하여 그 위치와 연혁을 고찰하였다.¹³⁾

12) 『旅菴遺稿』卷4, 「南山舊廬記」, 甲戌始仕 仕二十六年 受祿二十四年 位躋三品 五典大府州.

이상 신경준이 저술한 주요 글에 대하여 개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거의 모두가 空論에 그치는 학문이 아닌 일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령, 「거제책」에서 중국의 수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능히 모방하여 우리나라에 옮겨오지 못한 것은 적용의 사물에 뜻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록 알고자 하여도 마침내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⁴⁾’라고 하여 적용력의 부재를 들고 있는데, 학문을 실용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로서 바로 實得의 정신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신경준이 학문을 함에 實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은 다음과 같은 홍량호의 「묘갈명」을 통해서도 직접 알 수 있다.

대개 학문을 넓히는 것은 요체를 알고 뜻을 높여 實에 힘쓰고, 많은 고인의 글을 망라하여 나의 도를 절충하여 만일 이치를 분석하고 의심을 푸는 데까지 이룬다면, 바로 깊고 현묘한 이치에 직결할 것이다. 이는 모두 옛 사람이 이르지 못한 바요, 이제 사람도 능히 말하지 못하는 바라고 하니 내 일찍이 웃것을 여미고, 경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¹⁵⁾

신경준이 한 말을 듣고서 홍량호가 감탄해마지 않는 내용이다. 결국 신경준은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질에 두어야함을 강조하고 있고, 고인의 글과 나의 도를 절충하여 이치를 분석해야 함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고인의 글을 통해 自得해야함을 말한 것이다.

이렇듯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한 신경준은 당대 士인들이 名物度數보다는 詞章에 힘쓰는 행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13) 尹在豊, 「旅菴先生の生涯와 學問的業績」, 『旅菴 申景濬 先生の學問과 思想』, 옥천향토문화연구소, 1994, 13~14쪽 참조.

14) 『旅菴遺稿』 卷8, 「車製策」, 而不能摸得移來我國者 非但不能致意於適用之物 而雖欲地之 卒無以詳也.

15) 『旅菴遺稿』 卷13 附錄, 「墓碣銘」, 蓋其學博而知要 志高而務實 旁羅百氏而折衷於吾道 至若析理辨疑 則直扶幽眇 皆前人所未道 今人所不能言者 余未嘗不斂衽而驚服.

우리나라의 선비는 詞章의 功力으로 과거하기에 心力을 허비하여 일생을 허무하게 마쳐서 사물에 밝고 기술에 통하는 데는 진실로 힘쓰지 않고 산림에 은거하여 수업하는 자가 간간이 그 뜻을 높이고 그 말을 크게 하며 名物度數를 末務로 삼아 뜻을 두지 않는다. 그 뜻과 말이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本末을 구비하고 德藝가 다 진취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서경』에 正德과 利用과 厚生으로 三事를 삼았으니 성인이 偏廢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¹⁶⁾

신경준은 평생 과거 공부에 매달려 몸과 마음을 모두 허비하는 선비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며, 이와 함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명물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의 모습을 개탄하고 있다. 물론 신경준도 학문에 있어 본과 말을 구분 짓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둘 모두 구비하기를 바라는 뜻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를 『서경』의 정덕, 이용, 후생 세 가지를 삼고 있는 데에서 찾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결국 성인도 학문의 실질을 강조했음을 보여 실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시 형식의 典範 탈피

한시는 운율에 따라 古體詩와 近體詩로 나뉜다. 고체와 근체로 분류한 것은 근체라는 개념이 확립된 盛唐 말기 초기부터로, 이렇게 분류된 초기에는 근체시는 당시에 새롭게 확립되어 유행하게 된 새로운 양식의 시였고, 고체시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구 양식의 시를 지칭하였으나 후대에는 시대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양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 바뀌었으므로 근체시보다 늦게 지어진 고체시도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근체시와 고체시는 양자가 가진 정형성의 강약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

16) 『旅菴遺稿』卷8, 雜著二「車制策」, 我東之爲士者 以詞章之功 爲決科之計者 枉費心力 壞了一生 其於明庶物通衆藝之道 固無足責 而山林之隱居修業者 往往高其志大其言 以名物度數爲末務 不肯致意 是其志與言 非不知其本 而本末俱舉 德藝皆進 則其美尤如何哉 書以正德利用厚生爲三事 聖人之不爲偏廢者可知矣.

으로 근체시는 정형성이 강하고 고체시는 약한 편이다.¹⁷⁾ 따라서 고체시는 格律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對句나 仄仄에 얽매이지 않았다. 압운도 느슨해서 7언으로 된 柏梁體가 구마다 압운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한 구를 건너서 압운을 했으며, 換韻도 허용하였다. 작품의 길이 역시 길고 짧은 제한이 없었다. 句法은 어느 정도 정제되어 있어 4언부터 7언체까지 다양한데, 경우에 따라 長短句를 뒤섞어 변화를 주는 雜言體도 있었다. 잡언의 경우에는 1자부터 10자 이상이 되는 구절도 있었지만, 주로 3·4·5·7언이 서로 잡용되었다.¹⁸⁾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신경준의 시 62제 145수의 시를 고체시와 근체시로 분류하고, 각각을 자수에 따라 좀더 세밀히 나누어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詩型		詩題
古體詩	齊言	四言古詩 「民隱詩」 10수, 「離合詩」, 「月歎」(12수)
		五言古詩 「遊子吟」의 「逍遙」·「白鹿洞」, 「除夕懷親」, 「野蟲」, 「記夢」, 「菜圃引」, 「素沙感懷十首」, 「除夕感懷」(17수)
		七言古詩 「遊子吟」의 「崑崙宮」·「閨梨窟」, 「渾沌酒歌」, 「奉別李則優」, 「挽崔斯文習」, 「來家」, 「漫步」, 「看鳥」(8수)
雜言	雜言古詩 「農諷」 12수, 「二十二相字歌寄李友」, 「示宗上人」, 「寄李戚兄則優」, 「古石磬」, 「龍門琴」, 「鷹谷山居八咏 分賦各二首」, 「畫竹屏吟」 8수, 「送趙秀才還山」(28수)	
近體詩	絶句	五言絶句 「別友人」, 「瞻鶴亭十景」 20수(21수)
		七言絶句 「望故鄉」, 「次畫屏韻」 7수, 「蘊眞亭八景」 8수, 「小蟲十章」 10수, 「謝韓上舍致明韻」(27수)
	律詩	五言律詩 없음
		七言律詩 「次王元美登岱山韻」 2수, 「次徐子興送莫廷尉之任南都」, 「次王元美題李于鱗白雪樓」, 「次鄒山人齋謝茂秦書來謁 作此以贈」, 「次解郡後寄懷李于鱗 時先余乞歸七年矣」, 「次丘宗伯邀余雪後登赤壁作」, 「次王元美兵滿山東」, 「次悼隋離宮」, 「次答王元美吳門邂逅見贈之作」, 「次送客遊洞庭湖」, 「次賦飛來雙白鶴」, 「次吳明卿守樵川 貽詩見訊 兼有卜居吳興之約」, 「次王元美起家按察河南寄促之官」, 「失題」, 「弘陵齋所夜坐」, 「水州謫中」, 「看史」, 「舊年」, 「風雨晚泊」, 「鸚鵡洲」, 「白菊一叢呈一二知己」, 「黃陵廟」, 「靜坐聞松聲」, 「寄山中友」 2수, 「過壽鼎原」, 「禿山城懷古」, 「謝府大夫」, 「籟史携弄玉上昇」, 「聞曉雞」, 「初夏懷二上人」(32수)
排律	없음	

17) 申用浩,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1, 120~122쪽 참조.

18) 임종욱, 『동양문화비평용어사전-중국편』, 범우사, 1997, 119쪽.

고체시는 제언과 잡언을 합하여 65수이고, 근체시는 절구와 율시를 합하여 80수로 집계되었다. 고체시의 경우, 제언이 37수이고, 잡언이 28수이며, 근체시는 절구보다는 율시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먼저 근체시의 특이한 사항은 율시의 모든 작품이 칠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칠언의 거의 모든 작품이 중국문인들의 작품을 차운했다는 점인데, 눈에 띄는 작가로는 王世貞과 李攀龍, 그리고 陸游 등이다. 육유는 시체에 그의 호나 자가 드러나지 않아 차운의 여부를 한 눈에 알아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수중적중」 시체 다음에 ‘此下 多次放翁詩’가 병기되어 있어서 「수중적중」 이후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육유의 시에서 차운했음을 알 수 있다.

왕세정과 이반룡은 중국 명 말기 後七子로서 前七子의 복고주의 성향을 본받아 ‘文必秦漢 詩必盛唐’의 기치를 내걸었던 이들로 유명하다. 즉, 이들은 전시대 ‘江西詩派’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문은 先秦兩漢을, 그리고 시는 성당을 모범으로 하여 본받을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조선중기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결국 추종하는 무리

19) 『여암유고』의 편집 체제는 전적으로 근체시보다 고체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작품의 순서가 고체시를 나열한 뒤에 근체시를 배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품의 배열 순서는 창작된 연대순인데, 『여암유고』는 예외로 편집하였다. 또한 신경준은 관직에 나아가기 전에는 주로 고체시를 지었고, 그 후에는 근체시를 더 많이 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연대 표기가 된 작품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알 수 있다. 가령, 「농구」(1729년), 「유자음」(1730년), 「기몽」(1730년), 「채포인」(1740년), 「소사감회10수」(1740년), 「차왕원미등대산음」(1758년), 「첩학정10경」(1760년), 「민은시」(1765년), 「수주적중」(1770년), 「온진정8경」(1779년), 「소충10장」(1780년) 등의 작품에 연대 표기가 되어 있다. 여기에서 「농구」, 「유자음」, 「기몽」, 「채포인」, 「소사감회10수」, 「민은시」 등이 고체시이고, 나머지 시는 근체시에 속한다. 즉, 1758년 신경준의 나이 46세 이전까지는 고체시가 많은 반면, 그 후에는 「민은시」만 제외하고, 모두 근체시임을 알 수 있다. 「민은시」는 임금의 명을 받고 지은 시로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고체시로 분류는 되지만, 그 전시대 고체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경준에게 있어서 고체시와 근체시의 구분은 단순히 형식상의 구분이 아닌 삶의 궤적과도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행동과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수학기에는 그에 걸맞게 형식적 과격이 가능한 고체시를 많이 창작하였고, 관직에 나아가면서부터는 정해진 형식을 지켜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보니 시도 근체시 위주로 창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三唐詩人의 출현까지 있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하지만, 왕·이를 추종하던 많은 문인들이 과거형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든가 모방과 擬古을 일삼는 데까지 이르러 金昌協·昌翁 형제 등 시에 있어서 독창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인들에 의해 비판을 받기에 이른다.²⁰⁾ 한편, 육유는 중국 송 때의 시인으로 방옹은 그의 호이다. 그는 침략자인 금에 철저히 항쟁을 주장했던 애국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일편단심 포부를 노래하며, 죽는 순간까지 국토회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신경준이 왜 이들의 시 작품을 차운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의 문집 어떤 글에서도 이론적으로 왕·이와 육유 등을 드러내어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왕·이와 육유의 작품을 읽고서 느낌이 일어 차운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후철자의 시문 등을 애독했다는 한 증좌가 되기에 충분하다.²¹⁾

이상 신경준 시의 근체시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이미 말한 대로 신경준은 145수 중 65수의 작품을 고체시로 나타낼 정도로 고체시에 대해서 남다른 特長을 보이고 있었다. 즉, 고체시에 傾度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다음의 「농구」 서문은 그에 대한 단서를 알려준다.

내 나이 17, 8세에 고체시 짓기를 좋아하였는데, 대부분 당나라 孫某와 盧某를 본받은 것이었다. 임자년 이후 喪이 연이었고, 경신년간엔 떠돌아다니는데 분주하여 다시는 시를 읊지 못하였다. 올 겨울에 우연히 낡은 文匣을 정리하다가 어지러이 쓴 원고 한 권을 찾았다. 비록 거두어 보관해 둘 정도는 아니지만 젊을 때 유희했던 것을 보자니 감회가 있었다. 이에 모아 기록해두되 지나치게 거칠고 괴이한 것은 모두 없애고 나니 몇 편으로 엮어졌다. 갑자년 11월 소한절에 쓴다.²²⁾

20) 박명희, 『18세기 문학비평론』, 경인문화사, 2002, 42~44쪽 참조.
 21) 신경준이 왕·이와 육유 등의 시를 차운한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특히, 후철자의 시문을 애독했다고 함은 신경준이 지향한 시 성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문적인 성향과도 연관지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旅菴遺稿』 卷1, 「農謳」 小序, 余年十七八 喜作古體詩 多效唐孫盧 壬子以後 喪禍連

위 서문의 입자년은 신경준의 나이 20세를 이르고, 경신년은 28세를, 그리고 갑자년은 32세를 말한다. 「농구」 작품에 기유년(1729년)으로 간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때는 신경준의 나이 17세로 서문 冒頭에 적힌 나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서문의 내용에 의하면, 신경준은 당시 고체시를 배우는 대상으로 당나라 시인의 작품을 모범 삼았다고 하였다. 손모와 노모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평소 강조했던 자득 정신이 시문 학습에서도 그대로 보여 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위 글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나치게 거칠고 괴이한 것은 모두 없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고체시는 근체시에 비할 때 형식적으로 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틀을 지나치게 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신경준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고 할 수 있다. 신경준도 처음에는 남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를 지었겠지만, 시를 짓는 궁극적 이유 중 하나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점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경준이 어려서부터 경도되었던 고체시의 형식적 실체는 앞 도표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4언은 12수, 5언은 17수, 7언은 8수, 그리고 잡언이 28수 등으로 나타났다.

4언은 매 시구가 네 자 또는 네 자를 위주로 꾸러진 시 형식을 일컫는데, 다른 시 형식에 비할 때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으며, 『시경』을 그 원조로 보고 있다. 신경준은 「민은시」서문에서 ‘갑신년 겨울 임금께서 『시경』의 唐風篇을 강의하시고 느낌이 있어 팔도의 관찰사 및 문신으로서 수령된 자들에게 명령하여 각기 그 지방의 민요와 백성들의 사정을 진술하여 바치게 하였는데, 그것을 「민은시」라고 이름 하였다.’²³⁾라고 적고 있다. 이에 의하면, 4언으로 시를 지은 것은 순전히 『시경』을 의식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합시」는 원래 잡체시의 일종으로 시구 가운데 몇몇 글자를

仍 庚申之間 流離奔走 遂不復有所吟咏矣 是歲冬 偶閱古笥 得亂藁一卷 雖不足收置 而觀少時之所游戲者 亦有感焉 乃輯以錄之 而其過於險怪者 皆刪之 總若干篇 甲子十一月小寒節。

23) 『旅菴遺稿』 卷1 詩, 「民隱詩」, 甲申冬 上講唐風有感 命八道方伯及文臣爲守宰者 各賦其地之謠俗民瘼以進 名之曰民隱詩。

먼저 잘라내어(離) 그 반을 취한 뒤 다른 한 글자의 나머지 반을 합쳐서 (合)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내는 식으로 먼저 떼고 나중에 붙여서 만들어진 글자로 숨겨진 의미를 표현한다.²⁴⁾ 신경준이 지은 「이합시」는 14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구씩 이합해보면 ‘高靈申景濬舜民’이라는 글자가 이루어진다. 문자를 이합시켜 관량과 이름, 자등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월탄」은 모두 10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한 점은 ‘天地昏黝 / 清明自守 / 嗚呼’와 같이 두 구가 끝날 때마다 ‘오호’라는 후렴구가 있다는 점이다. 시가 마치 노래처럼 인식되는 부분이다.

고체시 중 5언과 7언은 비형식적이면서도 근체시와 일정 부분 닮은 면이 있어서 정형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근체시를 즐겨서 짓는 문인들도 많은 내용을 격의 없이 나타내 보이고 싶을 때 한 번쯤 지어보는 시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모두 네 작품으로 구성된 「유자음」은 경술년(1730년) 18세 때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언과 7언이 각각 두 작품씩이다. 또한 같은 5언일지라도 구수의 길이가 서로 다른데, 「소요」가 12구인 반면, 「백록동」은 36구이다. 물론 이 「유자음」 시의 압운은 換韻을 한다거나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아 고체시의 전형성인 형식의 파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석회친」과 「야충」, 「채포인」 등은 장편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관찰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내 보이고 있다. 「소사감회십수」 또한 다양한 구수를 보여주는데, 6구부터 16구까지 일정하지가 않다. 「제석감회」와 「來家」·「만보」 등은 각각 5언과 7언이면서 6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7언인 「간조」의 경우는 3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흔히 볼 수 없는 형식적 파괴임은 분명하다.

잡언고시는 작품의 길이는 길고 짧은 데 개의치 않으며, 한 구절의 자수 또한 길이가 다양하다. 이 고체시는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토로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²⁵⁾ 즉, 고체시의 정체성을 그대로 띠고 있는 시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경준의 작품 중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4) 임종욱, 전계서, 743쪽 참조.

25) 임종욱, 전계서, 760쪽 참조.

占年豊	풍년을 짐쳐보니
十日五日一雨風	10일과 5일에 한 번 꼴로 비바람 분다네
蒲葉日以長	부들 잎은 날로 자라고
菴葉日以盛	익모초는 날로 무성하다
今時若孰如	지금 때는 어느 때뇨
今時若我王聖	지금 때는 우리 임금 성스러운 시절이라
堯田九年塾	요임금 댐 9년 홍수 들었고
湯田七年蕪	탕 임금 댐 7년 가뭄 들었다네
我王聖	우리 임금 성군인지라
十月前郊三番雪 ²⁶⁾	10월 들녘에 3번 눈이 내렸네

「농구」 첫 번째 작품으로 3·7·5·5·5·6·5·5·3·7언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율동미와 생동성이 있다. 다시 말해, 시에 율동미를 가미함으로써 형식을 통해서 내용의 입체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신경준은 다양한 형식의 고체시를 창작하였다. 이는 신경준 자신이 많은 이들이 典範으로 여기는 시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탈피했을 뿐 아니라 나름대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선후기 문단 상황에서 단지 신경준만이 고시에 경도된 것은 아니었다. 신경준과 지음인 홍량호는 ‘蘭社’에서 여러 문인들과 詩會를 열었는데, ‘倡爲古詩’했다고 한다. ‘난사’에 모인 시인들이 고체시를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랬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⁷⁾ 홍량호는 그의 문집에서 근체시만을 숭상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데,²⁸⁾ 평소 지니고 있던 그러한 비판 의식을 시회를 통해서 실천해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淵泉 洪爽周는 율시에는 좋은 시가 없고, 오히려 ‘巷謳街謠’에서 볼 만한 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²⁹⁾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볼

26) 『旅菴遺稿』 卷1 詩, 「農謳」 雨暘若.

27) 陳在教, 『耳溪 洪良浩 文學 研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9, 75쪽 참조.

28) 『耳溪集』 卷10, 「芝溪集序」, 東人之詩 專尙近體 雖稱名家大手 率不過較短長於聲律 鬪巧拙於態色 古人冲和悠永之音 漠然難見可勝惜哉.

29) 『淵泉集』 卷24 雜著, 原詩·中, 知詩者出 雖或求之今日之巷謳街謠 而決不求之 今日之律詩也.

때, 신경준은 당시 문단에서 주창되고 있던 시의 형식적 파괴를 몸소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율 정신을 드러내보였다고 하겠다.

IV. 眞情性の 추구와 의미

신경준은 다수의 시에서 형식의 전범을 탈피함으로서 결국 실득적 사고를 표출하였다. 즉, 형식에 얽매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형식이 맞추어져 뒤따라오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적이고 서술적인 부분에서는 근체시의 형식을 어느 정도 고수하면서 장편 고체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체시의 기본적인 형식조차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眞情性を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7언이지만 3구에서 그친 <간조>라는 작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舉頭遙看孤鳥過 머리 들고 먼 곳 보니 외로운 새 날아가고
 鳥沒雲端也好看 섬 잠긴 구름 끝을 우두커니 바라보니
 不知身在竹欄干³⁰⁾ 내 몸이 대 난간 곁에 있는 줄을 몰랐구나

절구는 체제가 융통성이 있고 다루기가 수월해 생활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많은 시인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시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 작품은 한 구만 더 있었더라면 7언 절구로 분류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내용을 형식에 반드시 맞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인지 3구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시 한 편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미완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다음은 잡언 4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작품으로 시제는 <寄李戚兄則優>

30) 『旅菴遺稿』 卷1 詩, <看鳥>

이다.

日在寅參在申	태양은 동북쪽에서 뜨고 參星은 서남쪽으로 지니
白露下中庭	흰 이슬이 마당 가운데 내리네
沾我華彩衣	화려한 내 옷을 적시니
我思悠悠無已時 ³¹⁾	나의 그리움 아득히 그칠 때가 없구려

시 전체의 내용은 외척형인 이척우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구에서는 하루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방위를 통해 말하였고, 2구는 해가 서쪽으로 저서 한밤중에 이슬이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4구에서는 그리움이 그칠 줄 알아 밖에서 배회하다보니 옷이 적시어졌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가운데 시의 율격이나 압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1구의 ‘在’처럼 같은 한자를 한 구에서조차 반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하면, 같은 구는 아니지만 3·4구에서 ‘我’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절구가 지켜야 할 경제성까지 상실하고 있다. 이는 형식보다 내용을 위주로 생각한 작자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잡언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5구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다.

鍾嶺多櫟木	우뚝 솟은 고개엔 오동나무 많고
上谷多枯枝	높은 골짜기엔 마른나무 많다네
折枯以手	마른나무 가지는 손으로 꺾고
伐櫟以斧	오동나무 가지는 도끼로 베는데
莫傷老松柯 ³²⁾	늙은 소나무 가지는 손대지 마소

시체에 의하면, 응곡산에서 지내며 8영을 지었는데, 그것을 나누어 각 두 작품에 붙인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작품은 그 중 첫 번째로 구체적인 시제는 ‘떨감 줍기’이다. 한시에 있어서 5구의 형태는 고체시에서도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먼저 1·2구에서는 ‘오동나무’와 ‘마른나무’를 대칭화시

31) 『旅菴遺稿』 卷1 詩, <寄李戚兄則優>

32) 『旅菴遺稿』 卷1 詩, <鷹谷山居八咏 分賦各二首>搬柴.

켜서 ‘우뚝 솟은 고개’와 ‘높은 골짜기’에 각각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3·4구를 통해서 땀감 나무를 하는 광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5구에서는 많은 나무 중에서도 늙은 소나무만은 손대지 말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1·2구와 3·4에서 ‘多’와 ‘以’를 각각 두 번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價’와 ‘枯’가 또한 두 번 나오는데,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以’자는 虛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두 번이나 사용을 함으로써 한시의 고유한 형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형식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운율이 내재됨으로서 음악성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다음 시는 신경준이 17세에 지은 것으로 알려진 <農諷>의 네 번째 작품이다.

提鋤去	호미 메고 가노라
靑山白水稻田	청산에 맑은 물 흐르는 벼논으로
提鋤歸	호미 들고 돌아오노라
月明前生翠烟	밝은 달 아래 푸른 연기 감도는 마을로
白木柄強三咫	백목 자루 세치 남짓
一歲三百六十日	일 년 삼백육십일을
我命托子 ³³⁾	내 목숨 그대에게 맡겼노라

<농구>시는 조선전기 문인인 私淑齋 姜希孟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강희맹은 관각문인이었지만, 남다르게 순수 농사일까지 경험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농구> 14장을 창작하기에 이른다.³⁴⁾ 그후 조선후기에 이르러 瓶窩 李衡祥이 강희맹의 <농구> 14장을 차운하여 나름대로 또 다른 <농구> 14장을 만든다. 따라서 신경준의 <농구> 시는 강희맹 → 이형상

33) 『旅菴遺稿』 卷1 詩, <農諷>提鋤.
 34) 강희맹의 <농구>에 대한 연구는 신연우의 논문(『朝鮮前期 官人 農村詩의 構圖』, 『한국문학사의 전개과정과 문학담당층』, 국학자료원, 2002, 59~87쪽)과 柳在日의 논문(『私淑齋의 『農諷十四章』에 대한 작품 연구』, 『한국한시의 탐구』, 이회, 2003, 250~278쪽)을 참고할 것.

을 이어 차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희맹·이형상과 다른 점은 작품의 순서와 장의 수이다.³⁵⁾ 그렇지만 해가 뜨면서 농사일을 시작하여 하루 일과를 마칠 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된 점은 세 작가의 작품 모두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다.³⁶⁾

위 작품은 농부가 호미를 메기 위하여 논으로 갔다가 논을 모두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시 전반부에서 담고 있으며, 후반부 5구부터 7구 마지막까지는 호미에 대한 작중 화자의 감회를 서술하였다. 작중화자는 물론 농부인데, 농사를 지움에 있어서 호미라는 농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인 화술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1구에서 4구까지가 동적이라면, 5구에서 7구까지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1구와 3구에서 ‘提鋤’을 반복하고, 서로 상대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去’와 ‘歸’자를 사용함으로써 운율미를 갖추었다. 즉, 신경준은 <농구>가 농부들 사이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을 알기에 시를 창작할 때에 운율적인 측면을 크게 고려했다고 하겠다.

다음은 <농구>시 일곱 번째 작품으로 시제를 풀어보면, ‘긴 밭일을 마치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東畝大兒理	동쪽 밭은 큰아들이 다스리고
西畝小兒理	서쪽 밭은 작은아들이 다스린다
阿翁笑道大兒與小兒	그 아비 웃으며 두 아들에게 말하길
大兒小兒孰倍蓰	“큰 애 작은애야 누가 더 열심히 했더냐
北里張孀家	북리 장씨 노파집에
有酒新熟竹葉似	새로 익은 술이 죽엽주 같거늘
倍蓰三匝	열심히 일한 애는 세 주전자 사줄테고
當未者祇一匝	그렇지 못한 애는 한 주전자만
大兒小兒孰倍蓰 ³⁷⁾	큰애 작은애야 누가 더 열심히 일했더냐”

35) 강희맹, 이형상, 신경준의 <농구> 시의 작품 순서에 대해서는 趙柔珍의 전개논문, 48쪽을 참고할 것.

36) 鄭容秀, 『姜希孟 한시의 문학적 성격』, 국학자료원, 1993, 127쪽 참조.

37) 『旅菴遺稿』 卷1 詩, <農謳> 竟長畝.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느 농부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는 동쪽 밭을 짓게 하고, 작은 아들에게는 서쪽 밭을 짓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웃으며 말하기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복리 장씨 노파집의 죽엽주를 세 주전자 사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는 한 주전자만 사 줄 것이다”라고 한다. 아버지의 말 속에서 농부의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데, 7·8구에서는 특히 동요적 요소도 감지된다. 뿐만 아니라 잡언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운율미는 물론이거니와 대화체를 가미하여 입체적인 효과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은 거의 잡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작품들이었으나, 다음 시는 4언의 형태를 띤 정형의 고체시이다. 시제는 <민은시>로서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여암유고』 권1 시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온 작품이기도 하다.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장인 ‘總敍’이다.

遜矣淵土	아득한 장연 땅은
西海之溇	서해의 바닷가라
唐价攸館	당나라 사신도 머물렀고
元帝來賓	원 순제도 왔던 곳
黑齒紅帕	검은 이빨 붉은 두건
狂獠怨暱	광분하여 성내며 노려보네
輿在麗季	지나간 고려말엔
荊祀秦秦	잡초들만 무성터니
昭代作邑	밝은 시대라 고을로 일구어
乃遷南民	남쪽 백성 이주했네
厥土塗泥	토질은 진흙이라
雨淤旱龜	비오면 진흙탕 가물면 거북등
厥穀黍稷	곡식이란 피와 기장이요
下下其畷	그 밭은 하중의 하로다
厥菽維馨	그래도 나물만은 향기로와
沙芽冰蕒	황두채와 얼음순채
厥民驍勁	사람들은 날래고 굳세어
隴蜀氣偏	농서와 파촉의 기상도 어렵없다네

厥戶五千
厥兵七千³⁸⁾

호수는 5천이요
군사는 7천이다

<민은시>는 신경준의 다른 고체시와는 다르게 뚜렷한 목적을 가진 ‘보여주기 위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서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갑신년 겨울 임금께서 『시경』의 唐風篇을 강의하시고 느낌이 있어 팔도의 관찰사 및 문신으로서 수령된 자들에게 명령하여 각기 그 지방의 민요와 백성들의 사정을 진술하여 바치게 하였는데, 그것을 <민은시>라고 이름 하였다. 이해 겨울에 나도 황해도 장연현감으로 발령받아 정월에 부임했으므로 2월에 시를 지어 바쳤다.³⁹⁾

갑신년은 1764년(영조 40년)을 가리킨다. 그해 겨울에 영조가 『시경』의 「국풍」에 있는 당풍시를 강의하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팔도에 파견된 관리자들에게 그 지방의 風謠를 지어서 바치게 했다고 한다. 이때 마침 신경준은 황해도 장연현감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어서 장연 지방의 인정과 세태를 시로 지어 임금께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제를 <민은시>라고 한 것까지 밝히고 있다. 『시경』 「국풍」은 옛날 중국의 각 제후들이 제후국의 민풍을 살펴 천자에게 바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⁴⁰⁾ 영조는 『시경』 「국풍」과 같은 모습으로 각 지방을 알고자 했던 것이다.⁴¹⁾

38) 『旅菴遺稿』 卷1 詩, <民隱詩>

39) 『旅菴遺稿』 卷1 詩, <民隱詩>, 甲申冬 上講唐風有感 命八道方伯及文臣爲守宰者 各賦其地之謠俗民瘼以進 名之曰民隱詩 是冬 賤臣除長淵縣監 正月赴任 故二月製進.

40) 『詩經』 卷1, 「國風」. 是以 諸侯采之 以貢於天子 天子受之 而列於樂官 於以考其俗尙之美惡 而知其政治之得失焉.

41) 『英祖實錄』 卷104, 40年 甲申 11月條에 의하면, ‘上因剗風七月章 命諸道採其民風 察其民隱 倣毛詩例 爲詩而進之’라고 되어있다. 이에 의하면, 임금이 『시경』 「國風」 爾風의 七月詩로 인하여 각 도의 수령들에게 지방의 민풍을 채집하여 민은을 살펴라고 했는가 하면, 또한 모시의 예에 따라서 시를 지어 바칠 것을 명했다고 한다. 즉, 임금은 민풍을 살펴 시를 지어 바치되 『시경』의 형식을 따를 것을 함께 주문하였다. 그런데, 신경준의 언급과 실록의 기록에서 다른 점은 『시경』 시를 언급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신경준

모두 20구로 이루어진 <민은시> 첫 장 시는 감정을 나타낸 시라고 하기보다는 장연 지방을 알려주는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장연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를 적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질과 토산물, 사람들의 성격, 인구수 등등을 적고 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註를 달아 보는 이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주었다. 이런 이유로 목적성이 뚜렷한 ‘보여주기 위한 시’라고 한 것이다. 비록 임금의 명에 의하여 『시경』의 전형적인 형식인 4언으로 쓰여진 시이기는 하지만, 장편 고체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한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菜圃引>이라는 시제를 가진 246구의 장편 중 일부분이다.

…(前略)…

胥土畫區宇	토지를 살피 구역을 정하고
整如神禹疆	우임금의 강역처럼 반드시 정돈하라
平畝苗欲齊	밭고랑 골라야 짝이 가지런히 자라고
嫩土根易張	흙이 부드러워야 뿌리 쉽게 퍼지리
樊柳戒墾狂	버들 울타리는 난폭한 동물들을 경계하고
劃溝導舞雩	구획의 도랑은 춤추는 외발새를 유인하네
見穢鋤梗亂	잡초를 보면 호미자루 요란히 놀리고
驗黃誅蠹蝗	누런 態가 보이거든 해충을 잡아야지
揀葉散精收	잎을 솥내어 흩어진 정기를 거두고
冢本元氣強	뿌리를 덮어주어 원기를 보강하라
服餌白化紫	거름을 주면 하얀 순이 붉게 변하고
結構愚爲良	가지를 묶어주면 몹쓸 것도 좋아지네
迭代課殿最	등급에 따라 번갈아 심어주고
排分整紀綱	알맞게 배분하여 기강을 정돈하리
甚密慮撕爭	너무 촘촘하면 서로 다투까 염려스럽고

은 임금이 당풍을 강의하다가 느낌이 일어 시를 짓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실록의 내용과 相異하다. 홍량호도 당시 洪州牧使로 있다가 이때 신경준과 같은 상황에 놓여 <洪州風謠詩> 10장을 지어 바치는데, 임금이 칠월장을 강의하다가 느낌이 일었음을 적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太疎悲蹶涼	너무 성기면 고독할까 걱정이라
辣恬須異蒔	매운 것과 단 것은 반드시 다르게 심고
強弱毋並秧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나란히 심지 말라
隣居多咻嗔	서로 붙어 있으면 성질이 사나와져
恬柔卒頽瘁 ⁴²⁾	단 것과 부드러운 것이 결국 야위어가고 만다네

…(後略)…

신경준의 나이 28세 때 지은 작품으로 그 서문에 따르면, ‘친분이 있는 延州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연주자가 시일이 오래되어도 오지 않아 실망하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이가 와서 연주자가 채소밭을 가꾸고 있다고 한 말을 듣고서 장난삼아 짓게 되었다’⁴³⁾라고 하였다. 신경준은 젊어서 한때 화훼와 같은 식물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식견도 지니고 있었다. <채포인>을 지은 4년 후에 순창의 舊齋를 둘러싼 화훼의 특징, 명칭, 前代 선인들의 인식 등을 담은 <淳園花卉雜說>과 같은 저술을 남긴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였다. <채포인>의 내용은 채소에 대한 온갖 박물학적 지식을 담고 있는데, 장편 고체시를 통해 자신의 채소에 대한 식견을 정리했다고도 할 수 있다.

위의 인용 부분은 ‘채소밭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먼저 구역을 정하여 정돈하고, 밭고랑을 고르며, 울타리를 쳐서 동물의 침입을 막을 것을 적었다. 또한 잡초를 보면 호미로 매주고, 해충을 잡아야 한다는 등등 채소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쏟아야 함을 나열하였다. 즉, 시를 통해 체계적인 지식을 설명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의 형식을 빌린 설명적인 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느끼기 위한 시’라고 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효용론적인 시의 기능을 나타내주고 있다고도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신경준은 여러 형태의 고체시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운율미를 가미하여 근체시의 정형화된 형식

42) 『旅菴遺稿』 卷1 詩, <菜圃引>

43) 『旅菴遺稿』 卷1 詩, <菜圃引>, 余與延州子雅善 延州子嘗有約同做 久不來悵甚 有人來傳方理菜圃云 戲作此以寄之.

을 벗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정형적인 가운데 정보를 전달해주는 등 실득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그의 학문적 성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일정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량호는 일찍이 『여암유고』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말로 드러내었을 때면 왕왕히 궁색하지 않고 드러냄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꼭 맞으며, 글을 이룰 때엔 앞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슴 속에 있는 바를 드러내어 구차히 일정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탁연히 일가를 이루었으니 진실로 드문 경재이며, 희세의 通儒라 할 수 있다.⁴⁴⁾

신경준의 학문적 성격 뿐 아니라 학문 외적인 측면까지 여과 없이 잘 말해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준은 무조건적으로 남을 따르는 태도를 지녔다기보다는 스스로 일가를 이루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시단에서는 일부 문인이 중심이 되어 정형화된 시의 형식적 측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杜機 崔成大도 그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성대는 민요적 발상에 의해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최성대에 대해 신경준은 ‘다행히 두기 최공의 작품이 홀로 天機를 운용하여 翩然히 멀리까지 거론하여 韻은 편안하며, 용모는 華하고, 감정은 온화한 듯하며, 興趣는 그윽하여 盛唐의 色으로 『시경』의 음을 지은 것이니, 천여 년의 우리나라에 이러한 운치를 얻은 이는 오직 공 한 사람뿐이다’⁴⁵⁾라고 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평소 신경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생각을 최성대를 통해서 언급했다고 할 수 있다. 최성대는 시에 있어서 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문인 중 한 사람이다. 자신의

44) 『旅菴遺稿』序, 其發之言也 汪汪乎不窮 鑿鑿乎有徵 其形於文也 不襲前人之口 而自出吾肺腑 不拘繫於繩尺 而自中窾會 卓然成一家之言 可謂絕類之宏才 希世之通儒也.

45) 『旅菴遺稿』卷5 跋, 『杜機翁詩集跋』, 幸而杜機崔公作 獨運天機 翩然遠學 其韻徐 其容華 其情藹如 其趣幽然 以盛唐之色 爲江沱汝漢之音 千載東土 能得此調者 惟公一人.

생각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는 법과 같은 형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경준이 최성대를 극찬한 부분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체계적인 이론적 틀을 내세워 고체시를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고체시의 최대 장점을 활용한 문인에 대해 최대의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시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제기된 것으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시의 고답적인 측면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V. 맺음말

본 논고는 신경준의 학문적 특성과 고체시의 실상, 그리고 고체시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한 추적을 목적으로 하였다. 신경준은 모두 62제 145수의 시문을 남겼는데, 이러한 편수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편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에 앞서서 신경준 자신이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적 형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신경준이 남긴 저술은 거의 모두가 空論에 그치는 학문이 아닌 일상에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쓴 글이었다. 이는 학문을 실용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로서 바로 實得의 정신과도 상통한다고 결론지었다.

신경준의 시 62제 145수를 고체시와 근체시로 분류하고, 각각을 자수에 따라 좀더 세밀히 나누어 보면, 고체시는 제언과 잡언을 합하여 65수이고, 근체시는 절구와 율시를 합하여 80수로 집계되었다. 또한 고체시의 경우, 제언이 37수이고, 잡언이 28수이며, 근체시는 절구보다는 율시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경준은 145수 중 65수의 작품을 고체시로 나타낼 정도로 고체시에 대해서 남다른 特長을 보이고 있었다. 즉, 고체시에 傾度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신경준 자신이 많은 이들이 典範으로 여기는 시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탈피했을 뿐 아니라 나름대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였다.

신경준은 이와 같이 다수의 시에서 형식의 전범을 탈피함으로써 결국 실득적 사고를 표출하였다. 즉, 형식에 얽매여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형식이 맞추어져 뒤따라오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적이고 서술적인 부분에서는 근체시의 형식을 어느 정도 고수하면서 장편 고체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체시의 기본적인 형식조차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眞情性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판단하였다.

참고 문헌

1. 자료

『詩經』
 『旅菴遺稿』
 『旅菴全書』
 『淵泉集』
 『英祖實錄』
 『耳溪集』

2. 저서 및 논문

고동환, 「여암 신경준의 학문과 사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6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3.
 金賢珠, 「譯註 旅菴詩」,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3.
 박명희, 『18세기 문학비평론』, 경인문화사, 2002.
 신연우, 「朝鮮前期 官人 農村詩의 構圖」, 『한국문학사의 전개과정과 문학담당층』, 국학자료원, 2002.
 申用浩,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1.
 오병무, 「여암 신경준의 ‘소사문답’에 대한 존재론적 조명」, 『건지철학』 4집, 한

국건지철학회, 1996.

柳在日, 『私淑齋의 「農謳十四章」에 대한 작품 연구』, 『한국한시의 탐구』, 이회, 2003.

尹在豊, 『旅菴先生の生涯와 學問的業績』, 『旅菴 申景濬先生の學問과 思想』, 옥천향토문화연구소, 1994.

이강오, 『여암의 소사문답』, 『여암 신경준 선생의 학문과 사상』, 옥천향토문화연구소, 1994.

임종욱,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중국편』, 범우사, 1997.

鄭容秀, 『姜希孟 한시의 문학적 성격』, 국학자료원, 1993.

趙柔珍, 『旅菴 申景濬의 思惟樣式과 詩文學世界』,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陳在敎, 『耳溪 洪良浩 文學 研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9.

<투고일 : 2005.6.30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K C I

Abstract

Truthfulness in Yeom Shin Keoung Jun's Goche Poetry

Pak, Meoung-hui

This study aim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Shin Keoung Jun's academics, and the world, features and meanings of Goche poetry.

Shin Keoung Jun left 145 poems under 63 headings, among which 65 poems are in Goche style and 80 are in Geunche style. That is to say, Shin Keoung Jun shows extraordinary excellence in Goche poetry as he created as many as 65 poems in Goche style out of the total 145 works. It means that Shin Keoung Jun departed from poetry styles which were considered as a canon by others, and that he made his own effort to explore new horizons in his poetry.

Likewise, Shin Keoung Jun expressed his practical way of thinking by departing from existing formats in many of his poems. That is, his poems are not in a way that contents take shape within the limited forms but that contents are focused on with formats accompanying and supporting them. It can be interpreted as his trial to pursue truthfulness in his poetry.

Key Words : Shin Keoung Jun, Goche poetry, accompanying and supporting, truthfulness